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사회·정서, 생애목표의 수준 및 구조적 관계에서의 성차*

이현주** · 채유정***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체험활동참여, 사회·정서, 생애목표 간의 구조적 관계와 성차를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정책 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의 1~3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중1년의 체험활동 참여, 중2년의 사회·정서(정서적 안정, 공동체 의식, 학교적응), 중3년의 생애목표(가족, 성공, 성장, 사회기여)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은 10명 중 9명 꼴로 1년 동안 2~3개 유형의 체험활동에 약 20시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참여율이 가장 높은 체험활동은 봉사활동으로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였다. 둘째,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체험활동 참여 유형수와 참여 시간이 많았고, 특히 문화/예술, 봉사, 직업체험, 자기계발에 참여한 비율이 높은 반면, 남학생은 건강/보건, 과학/정보 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공격성, 신체증상, 우울증상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공동체 의식(봉사활동, 다문화 수용)과 학교적응(학교규칙, 교우관계)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애목표 중 가족목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반면, 성공목표와 성장목표는 하위 문항별로 성차가 발견되었다. 셋째, 각 연구변인 간의 관계에서는 성차가 존재하지 않아 남녀 모두에게서 체험활동 참여는 사회·정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체험활동이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정서가 생애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정서적 안정은 성공목표를 제외한 모든 생애목표에, 공동체 의식은 가족과 성공목표를 제외한 자기성장과 사회기여목표에, 학교적응은 모든 생애목표 유형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네 개의 생애목표에 대한 체험활동 참여의 직접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는 모두 유의하였고, 성공목표를 제외한 가족, 자기성장, 사회기여 목표에 대한 체험활동 참여의 총효과 또한 유의하였다.

주제어 : 체험활동, 사회·정서, 공동체 의식, 학교적응, 생애목표

* 이 논문은 2013년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발표 내용을 확장·수정한 것임.

** 명지대학교 교직과 부교수, 제1저자

***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선임연구원, 교신저자, ychae@kaist.ac.kr

I. 서 론

질풍노도의 시기라 불리는 청소년기는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또한 사회적 성인으로 발달해가는 시기를 말하며,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 성인과 유사하나 정서 및 사회적으로는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한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급격하게 일어나며 이 시기의 성공적인 발달과업 수행은 이후의 성공적인 사회생활로 이어지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인격적으로 조화로운 발달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 것은 발달 단계상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뿐 아니라 심화되는 경쟁적 학습 환경으로 인하여 다양한 심리적 갈등을 겪는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고 공동체 의식을 발달시키며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성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청소년의 주요 과업 중 하나가 이러한 안정된 사회·정서를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삶의 목적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Erikson, 1963; Super, 1953).

청소년의 전인격적 발달을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데, 청소년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봉사 및 협동, 환경과 타인에 대한 배려 활동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된 정서와 공동체적 인식을 발달시킬 수 있다. 청소년 활동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청소년기본법 제3조 2호에서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체험활동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육제도의 측면에서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교과외 활동이 제도화되어 일반 교과의 부수적 활동을 넘어선 창의성과 인성을 계발하기 위한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청소년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서 용어와 개념 간의 중복과 혼용이 있으나, 모두 청소년활동의 중요한 요소로 ‘체험’을 강조하고 있기에 이를 ‘청소년 체험활동’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황진구, 허효주, 안현미, 2013).

많은 연구들은 청소년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사회·정서적인 요인과 정적 관계가 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 체험 활동이 공동체 의식 함양(강가영, 장유미, 2013; 박가나, 2009),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효능감 및 정서적 안정(도종수, 성준모, 2013; Ussher, Owen, Cook & Whincup, 2007), 그리고 학교적응(고관우, 남진열, 2011; 조아미, 신태수, 2012; 최형임, 이재성, 문영경, 2012)과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또한, 이러한 건강한 사회·정서가 청소년기의 주요 과업인 생애목표 정립에도 긍정적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신종호, 진성조, 2013). 여러 연구들이 청소년기의 체험활동이 사회·정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사회·정서와 생애목표 간의 긍정적 관계들을 제시하였으나, 청소년 활동, 사회·정서, 삶의 목표설정 등과의 통합적인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기는 신체, 정서 및 사회적인 발달에 있어서 성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각 연구변인에서의 수준과 관계에서 성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여학생은 언어 및 사회적 활동에 흥미가 높은 만큼(이현주, 김용남, 2011; Kurtz-Costes, Rowley, Harris-Britt & Woods, 2008; Midgley, Kaplan & Middleton, 2001), 남학생보다 청소년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정서, 생애목표인식에서의 성차 연구결과는 불일치되는 경향이 있어 일부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낮은 자율성, 유능성 지각과 목표인식(김양분 외, 2010; 김주환, 김은주, 홍세희, 2006; Lopez, Campbell & Watkins, 1986; Schunk & Pajares, 2002)을 보고하고, 일부연구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임지현, 류지현, 2007; 전성희, 신미, 유미숙, 2011). 이러한 불일치는 사회·정서, 생애목표인식의 하위 구인에서 각기 상이한 성차가 존재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이러한 성차가 각 변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추측 가능하다. 따라서 청소년 활동 참여, 사회·정서, 생애목표의 수준 및 관계에서의 성차가 존재하는지를 청소년의 전체 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대규모 표집의 종단자료를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청소년기의 발달을 이해하고 성별에 적합한 체험활동 및 교육적 처치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이 참여하는 체험활동의 유형과 빈도는 어떻게 나타나며 성차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사회·정서(정서적 안정, 공동체 의식, 학교적응), 생애목표(가족, 성공, 자기성장, 사회기여) 수준에서 성차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와 사회·정서, 사회·정서와 생애목표 간의 관계는 어떠하며 성차가 존재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와 성차

청소년 활동은 창의·인성 발달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2004년 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 활동을 크게 9가지 영역, ① 건강/보건활동, ② 과학/정보활동, ③ 교류활동, ④ 모험/개척활동, ⑤ 문화/예술활동, ⑥ 봉사활동, ⑦ 직업 체험활동, ⑧ 환경보존활동, ⑨ 자기(인성)개발활동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활동 예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007년 초, 중, 고 학생 3,539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활동 참여 실태 연구에서 1년 동안 청소년 활동에 참여한 횟수는 평균 7.5회로 1-4회 33.3%, 10회 이상이 30.7%, 5-9회는 29.1%, 참여경험 없는 청소년은 6.9%로 나타났다(이종원, 장근영, 김호순, 2007). 그리고 2009년에 청소년활동 참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성호와 문호영(2010)의 참여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1년 동안 5회 이상인 경우는 48.4%, 1회인 경우 25.8%, 2회인 경우 11.8%, 3회인 경우 8.9%, 4회인 경우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2009년 연구의 절반 가량의 응답자가 5회 이상의 청소년 활동에 참여했지만 약 37%의 학생은 2회 미만의 참여를 보여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에 응답한 청소년들의 청소년 활동 참여 이유로는 ‘단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기 위해’가 21.1%로 가장 많았고, ‘새로운 사실을 학습하기 위해’는 20.2%, ‘친구들과의 관계형성을 위해’가 12.2%, 그 외에도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자신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위해’가 각각 11.8%, 11.2%를 차지했다. 참여 이유로는 지적인 활동에 대한 욕구와 동시에 사회적인 관계형성, 자아개발 측면을 동시에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 발달과업과 체험활동 참여 동기 간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청소년의 체험활동에 있어서 성차를 제시한 연구들은 거의 없었으나, 체험활동이 청

소년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목 흥미 등에서의 성차로 인하여 체험활동의 참여유형에서도 성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대다수 연구들에서 여학생의 경우 영어와 국어 같은 언어영역에서 흥미가 높았고, 사회성과 관련된 활동을 선호하는 반면, 남학생들의 경우 수학과 과학 영역에서 흥미가 높았고 시공간적인 특성을 가진 활동을 선호한다(이현주, 김용남, 2011; Eggen & Kauchak, 2011; Kurtz-Costes et al., 2008; Midgley et al., 2001). 따라서 여학생은 언어적 표현과 사회성을 요구하는 봉사활동과 표현 예술 등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남학생은 과학분야의 흥미와 시공간적 활동 선호로 인해 과학/정보 활동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연구들에서 여성들의 인간관계 지향적 특성으로 인하여 이타성이 높은 여성들의 봉사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ancer & Pratt, 1999; Wright, 1971). 또한,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연구에서 남학생은 스포츠활동, 여학생은 자연체험활동과 예능활동 프로그램 참여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윤현, 2010).

표 1
체험활동 영역 및 예시

영역	영역별 활동 제시(예)
건강/보건활동	신체단련활동, 약물예방활동, 흡연·음주·약물·비만 예방활동, 안전·응급처치 활동, 성교육활동 등
과학/정보활동	모형 및 로봇활동, 인터넷활동, 우주천체활동, 정보캠프활동, 영상매체활동 등
교류활동	청소년국제교류활동, 남북청소년교류활동, 도·농간 청소년교류활동, 국제이해 활동, 다문화이해활동, 세계문화 비교활동, 한민족 청소년캠프 등
모험/개척활동	답사등반활동, 야외활동, 해양활동, 오지탐사활동, 극기훈련 활동, 호연지기활동, 수상훈련활동, 한국의 산수탐사활동, 안전지킴이활동 등
문화/예술활동	지역문화, 세계문화, 대중문화, 역사연극 활동, 어울마당, 전통예술 활동 등
봉사활동	일손돕기 활동, 위문활동, 지도활동, 캠페인활동, 자선구호활동, 지역사회개발 및 참여 활동 등
직업체험활동	청소년모의창업, 경제캠프, 사회생활기술, 진로탐색 활동, 직업현장 체험 등
환경보존활동	생태활동, 환경탐사활동, 자연지도 만들기, 숲 체험, 환경음식 만들기, 환경 살리기 활동, 환경·시설·보존활동 등
자기(인성)계발 활동	표현능력개발 수련활동, 자기탐구활동, 자기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자기표현활동, 심성수련활동 등

자료: 여성가족부(2011)

2. 청소년의 사회·정서와 생애 목표수준에서의 성차

청소년기의 건강한 사회·정서 발달의 특징은 정서적 안정, 공동체 의식, 학교적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청소년기의 정서적 특징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사춘기를 지나며 준비되지 못한 새로운 변화에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와 혼란을 겪는다(Janna & Michael, 1995). 여러 연구들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겪는 부정적인 정서로 주의집중결여, 좌절감, 우울, 불안, 대인예민성, 적대감 등과 더불어 다양한 신체적 증상 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구미향, 2005; 한상철, 이수연, 2003; Mailandt, 1998).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볼 때 청소년의 정서안정의 요인으로 주의산만,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증 등의 수준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 의식이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구성원 간 유대감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발전과 화합에 도덕적으로 헌신하고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 이질적인 구성원들에 대한 포용 등이 포함된다(김원태 2001). 특히, 경쟁이 심화되는 현대 학습 환경으로 인해 공동체 의식은 청소년들이 개발해야 할 중요한 사회·정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위정, 2012).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은 특히 중요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사회·정서 발달의 중요한 척도 중 하나는 학교적응에 대한 부분이다. 청소년기의 상당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만큼,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신뢰로운 교사관계 및 또래관계를 형성하며 긍정적인 학습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행복도 뿐 아니라 성인 이후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조아미, 신택수, 2012).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 있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이 시기의 사회·정서발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는 이러한 건강한 사회·정서를 바탕으로 자신이 추구할 생애목표들을 정립하는 것이다. 생애목표에 대한 연구들은 생애목표를 크게 성공 지향 목표와 삶 지향 목표로 구분하여 성공 지향목표에는 부, 명예 등의 획득, 삶 지향 목표에는 자기성장, 사회기여, 행복한 가정 영위들을 포함시키고 있다(신종호, 서은진, 이은경, 2011). 이러한 생애목표의 유형은 일괄적인 인식 수준을 지니기 보다는 각기 다른 프로파일을 형성할 수 있기에 청소년들의 활동과

사회·정서 수준에 따른 다른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측면과 생애목표에서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현지, 하은혜와 오경자(200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6,570명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증후군과 사회능력에 대한 성차를 조사했는데, 남자청소년은 사회적 미성숙 및 비행척도에서 높은 평균점수를, 여학생은 내재화문제, 총행동문제증후군,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공격성 척도 등에서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김소영(201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구체적으로 남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 정도가 여학생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 측면에서의 성차를 분석한 도종수와 성준모(201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은 행복감이, 여학생들은 사회성 요소 중 자기표현, 성취동기, 공동체성, 대인관계, 자기관리, 자신감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관련 연구에서 긍정적인 또래관계 인식 수준은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주, 권희경, 신태섭, 2013; 박성혜, 윤종희, 2013; Adler, Rosenfeld & Towne, 2004).

생애목표와 관련된 성차 연구는 많지 않지만 미래목표인식에 대한 일부 연구에서 신체적 건강과 명예 영역에서 남학생의 목표인식 수준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김양분 외, 2010), 전체적인 목표추구의 인식에서는 성차가 존재하지 않았다(이현주 외, 2013).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고 전통적인 유교문화에서 여성에게 양육과 가족에 대한 역할을 중시여기는 것을 감안할 때, 여학생의 가족목표 인식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요약하자면, 여학생들이 정서·사회적인 측면인 자아존중감, 정서조절, 내재화문제, 행동문제, 위축, 신체증상, 우울 및 공격성 등에서 취약하다는 결과가 있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오히려 대부분의 사회성 요소에서 여학생이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며, 생애목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어 성차에 대한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대규모 표집 자료를 활용하여 이러한 사회·정서 변인들과 생애목표 인식 수준에 대한 성차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 내고 성별에 따른 적절한 교육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창의적 체험활동, 사회·정서, 생애목표 수준뿐 아니라 각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의 성차를 확인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청소년 체험활동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3. 청소년의 체험활동과 사회·정서, 생애목표 간의 관계

먼저, 청소년 체험활동과 사회·정서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다수 선행연구에서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의 사회·정서적인 요인과 긍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과 정서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해보면, 청소년 체험활동이 공동체 의식 함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강가영, 장유미, 2013; 박가나, 2009; 박재숙, 2010),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효능감 및 정서적 안정(김윤나, 박옥식, 2009; 도종수, 성준모, 2013; 박재숙, 2010; 허철수, 강옥련, 2010; Ussher et al., 2007), 그리고 학교적응(고관우, 남진열, 2011; 조아미, 신태수, 2012; 장덕희, 이명옥, 양점도, 2011; 최형임 외, 2012)과 긍정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관우와 남진열(2011)의 연구에서 초기 청소년(중학교 1학년 학생)의 체험활동이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351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체험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집단이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 적응에서 높은 평균을 보였는데, 모험 개척활동을 제외한 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건강보건활동, 문화예술활동, 자기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존활동, 교류활동 영역 모두에서 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덕희 외(2011)의 연구에서는 봉사활동에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도종수와 성준모(201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체험활동 경험이 10가지 사회성 하위요소 중 자존감, 낙관성, 행복감, 자신감, 성취동기, 공동체성, 대인관계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규, 최혜정과 박신애(2012)도 중고생 1,088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청소년 활동이 개인, 가족 및 학교와 관련된 구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 활동이 주관적 안녕감, 긍정적 가족관계, 학교적응 모두와 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보였다. 즉, 청소년의 체험활동과 정서·사회적인 측면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생애목표 관련 연구들은 최근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사회·정서적인 측면 및 청소년 활동과 생애목표(가족목표, 성공목표, 자기성장, 사회기여 등)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매우 극소수이다. 소수의 연구에 의하면, 성공지향 목표는 학업적 자기개념 및 시험불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삶 지향 목표는 학업적 자기개념과 학업 노력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중호, 진성조, 2013). 또한 김윤나와 박옥식(2009)의 연구에서는 동아리 활동이 직업성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진로 및 미래 목표 설정에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체험활동과 사회정서 간의 관련성, 사회정서와 생애목표 간의 관련성 연구들을 통합하여, 청소년 활동 참여가 사회·정서를 매개로 생애목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현대의 성공목표 지향적인 사회/학교 풍토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생애목표와 청소년 체험활동과의 관계 및 영향을 조사한 연구 결과는 없어 추가적인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변인의 수준에서 존재하는 성차가 변인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변인 수준에서의 성차뿐 아니라 변인간의 관계에서도 성차가 발견된다면 각 성별에 맞는 교육적 처치에 대한 보다 풍부한 함의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 활동이 정서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여학생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면 여학생의 사회정서 발달을 위하여 체험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변인 간 관계에서 성차가 존재하지 않고 남녀 동일하게 체험활동 참여율과 사회 및 정서가 생애목표 정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다면, 각 구인의 초기 수준 및 성차와 상관없이 남녀 모든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사회 및 정서 함양의 노력을 독려하는 기초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참여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유형과 빈도를 분석하고 청소년의 사회·정서(정서적 안정, 공동체 의식, 학교적응), 생애목표(가족, 성공, 자기성장, 사회기여) 수준 및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며 성별에 따른 차이를 조사함으로써 청소년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라는데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351명의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NYPI Panel Survey)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2년 최종 표본 유지율은 96.1%(2,259명)이었다. 이 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2,220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학생들의 성별 비율은 남학생 50.5%(1,122명), 여학생 49.5%(1,098명) 이었다.

2. 측정도구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의 중학교 1학년 자료에서 체험 활동 참여, 중학교 2학년 자료에서 사회·정서(정서적 안정, 공동체 의식, 학교 적응), 중학교 3학년 자료에서 생애목표(가족, 성공, 성장, 사회기여)의 각 변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체험활동 참여는 최근 1년 동안 참여한 체험활동 유형(건강·보건, 과학 정보, 교류, 모험 개척, 문화·예술, 봉사, 직업 체험, 환경 보존, 자기·인성 개발)의 개수와 체험활동에 참여한 총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정서적 안정은 주의산만,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에 대한 척도를 활용하였고, 공동체 의식은 사회봉사 및 협동과 다문화 수용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학교적응은 학습태도, 규칙준수, 교우관계, 교사관계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족목표는 행복한 가정, 가족친밀감,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성공목표는 성공 및 인정과 좋은 대학 진학, 성장목표는 창의성, 자기만족, 도전, 사회기여목표는 타인돕기, 환경보호, 정의실현에 관련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체험활동 참여를 제외한 모든 문항은 4점 리커트형(Likert-type)척도(① ‘매우 그렇다’에서 ④ ‘매우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체험활동 참여와 정서적 안정 관련 문항과 학교적응 중 부정문 기술로 된 일부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을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각 구인을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단일 구인으로 추출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변인에 해당하는 문항

수, 문항 예시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에서 사용된 각 척도의 조사문항은 관련 학문분과에서 널리 활용되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문항이다. 구체적으로 정서안정은 조봉환과 임경희(2003), 김선희와 김경연(1998), 김광일, 김재환과 원호택(1984)의 연구에서, 공동체 의식은 권혜원(2004), 양계민과 정진경(2008), 학교적응은 민병수(1991), 생애목표는 미국 교육 종단연구(U.S. Department of Education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2) 등의 연구에서 타당화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보다 자세한 변별 및 수렴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내용은 각 연구들과 이종원 등(20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낮은 신뢰도를 나타낸 일부 척도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관계 및 성공목표의 복합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가 각각 .6과 .5로 최소수준을 충족하고 있다(Thompson, 2004).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 따라 두 단계에 걸쳐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체험 활동 참여, 사회정서, 삶의 목표 정립에서 성차가 존재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변인에 대하여 두 개 집단에 대한 다변량분석 방법인 Hotelling's T-Square 분석과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 설정한 연구 변인들 간의 관계가 성별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한 다집단 분석을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표 2

측정도구 개요

		문항수	문항번호	문항예시	신뢰도
체험 활동참여 :1차년 (중1)	체험활동 참여				
	참여유형수	9	ACT1A01w1~ACT1A09w1	9가지 활동 참여 여부	-
	참여시간	9	ACT1B01w1~ACT1B09w1	9가지 활동 참여 시간	-
사회·정서 :2차년 (중2)	정서안정				
	주의산만	7	PSY1A01w2~PSY1A07w2	공부할 때 차분하게 앉아있기 힘들다.	.789
	공격성	6	PSY1B01w2~PSY1B06w2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808
	신체증상	8	PSY1C01w2~PSY1C08w2	공부를 하면 배가 아플 때가 있다.	.862
	사회위축	5	PSY1D01w2~PSY1D05w2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849
	우울증	10	PSY1E01w2~PSY1E05w2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904
	공동체 의식				
	봉사협동	4	COM2A01w2~COM2A04w2	가난한 나라 위해 기부할 수 있다.	.772
	다문화 수용	5	COM3A01w2~COM3A05w2	문화 다른 친구를 수용할 수 있다.	.843
	학교적응				
	학습태도	5	EDU2A01w2~EDU2A05w2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702
	학교규칙	5	EDU2B01w2~EDU2B05w2	차례를 잘 지킨다	.788
	교우관계	5	EDU2C01w2~EDU2C05w2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536
	교사관계	5	EDU2D01w2~EDU2D05w2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836
생애 목표 :3차년 (중3)	가족목표	3			.807
	행복한 가정		PSY3A10w3,	행복한 가정 생활,	
	가족친밀감		PSY3A12w3,	친밀한 가족관계,	
	좋은부모되기		PSY3A14w3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목표	3			.480
	성공·인정		PSY3A02w3,	성공해서 인정받는 것,	
	좋은 대학 진학		PSY3A06w3,	좋은 대학 가는 것,	
	부유소유		PSY3A15w3	부유를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장목표	3			.616
	창의성		PSY3A01w3,	창조적 생각과 행동,	
	자기만족		PSY3A04w3,	자신을 즐기,	
	도전		PSY3A07w3	도전과 모험이 중요하다.	
	사회기여목표	3			.693
	타인돕기		PSY3A05w3,	타인 돕기,	
	환경보호		PSY3A09w3,	환경보존,	
	정의실현		PSY3A13w3	사회 불평등 교정이 중요하다.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적 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변인들의 평균값, 표준편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각 변인 간 상관관계 중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변인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정서 중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이 자기 성장목표 및 사회기여 목표에 대하여 가지는 상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 체험활동의 참여 현황과 성차 (연구문제 1)

전체 86.9%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 동안 9개 유형 중 한 개 이상의 체험활동에 참여하였다. 평균 2.41개 유형에 평균 19.20 시간을 참여하였으며, 참여율은 봉사활동(60.9%)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모험/개척활동(36.3%), 직업체험활동(32.0%), 건강/보건활동(31.9%), 문화/예술활동(21.7%), 자기/인성개발(21.7%), 과학/정보활동(15.8%), 환경보존활동(11.4%), 교류활동(9.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참여 현황의 차이를 탐색하고자 참여활동 유형 수와 참여 시간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두 집단에 대한 다변량분석 방법인 Hotelling's T-Square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활동 유형 수와 참여 시간에서 성차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2=13.308$, $F(2,2217)=6.861$, $p<.001$). 구체적으로, 참여 유형 수($F(1, 2218)=11.946$, $p<.001$, $\eta^2=.005$)와 참여시간($F(1, 482)=9.115$, $p<.01$, $\eta^2=.004$) 모두에서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활동의 참여율에 대한 성차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건강/보건, 과학/정보 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높았고, 여학생은 문화/예술, 봉사, 직업체험, 자기개발에 참여한 비율이 높았다(표 4 참조).

표 3

변인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M(여)	SD(여)	
체화활동 참여	1. 참여시간	1	.526	.011	-.028	.074	.077	.034	.107	.069	.069	.136	.030	.062	.030	.000	.020	-.008	-.004	.003	.094	.028	.027	.042	.041	.036	20.47	19.61
	2. 참여활동유형수	.576	1	.011	-.027	.021	.109	.052	.121	.083	.037	.159	.056	.087	.067	.033	.070	.026	.030	-.002	.102	.048	.064	.045	.057	.099	2.53	1.78
정서안정																												
정서안정	3. (비)주의산만	.050	.035	1	.591	.423	.241	.395	.162	.070	.333	.433	.241	.213	.094	.087	.000	-.017	.025	-.150	.074	.070	.028	.058	.081	.080	2.63	.516
	4. (비)공격성	.022	.045	.521	1	.554	.264	.501	.124	.127	.277	.311	.320	.169	.066	.067	.064	-.016	.036	-.137	.047	.000	.026	.087	.097	.029	2.84	.567
	5. (비)신체증상	-.003	.027	.391	.571	1	.384	.610	.019	.014	.115	.218	.191	.122	.069	.107	.066	.021	.085	-.109	.024	.054	.063	.065	.096	.079	2.92	.632
	6. (비)사회위축	.044	.076	.277	.326	.496	1	.539	.089	.099	.029	.182	.247	.209	.072	.093	.065	.027	.031	-.075	.114	.011	.143	.077	.055	.065	2.75	.698
	7. (비)우울	.050	.071	.309	.435	.586	.535	1	.103	.080	.147	.312	.289	.188	.094	.147	.099	.050	.082	-.102	.084	.053	.120	.104	.107	.076	2.98	.612
	공동체 의식																											
	사회정서	8. 봉사활동	.055	.086	.127	.065	.008	.059	.070	1	.459	.381	.326	.335	.366	.107	.140	.075	.054	.033	-.087	.180	.098	.125	.223	.174	.123	2.76
9. 다문화수용		.040	.077	.054	.046	-.006	.032	.041	.479	1	.277	.221	.253	.280	.167	.148	.115	.066	.029	-.111	.211	.163	.163	.185	.176	.149	2.96	.587
학교적응																												
학교적응	10. 학급규칙	.026	.059	.246	.198	.118	.051	.086	.325	.256	1	.499	.419	.426	.098	.105	.080	.024	.022	-.084	.127	.098	.098	.142	.129	.125	2.83	.517
	11. 학습활동	.104	.135	.297	.164	.178	.157	.200	.347	.214	.505	1	.413	.461	.151	.143	.097	.060	.090	-.070	.159	.150	.062	.145	.146	.080	2.74	.499
	12. 교우관계	.067	.105	.151	.219	.213	.197	.293	.297	.246	.356	.433	1	.366	.176	.191	.190	.111	.081	-.140	.149	.102	.119	.175	.149	.156	3.06	.380
	13. 교사관계	.053	.112	.082	.076	.044	.077	.069	.359	.285	.499	.418	.386	1	.115	.079	.077	.031	.045	-.078	.154	.058	.096	.124	.112	.076	2.77	.650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사회·정서, 생애목표의 수준 및 구조적 관계에서의 성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M(여)	SD(여)
가족목표																											
14. 행복 기정	.089	.076	.061	.083	.101	.041	.094	.064	.134	.157	.192	.173	.175	1	.527	.605	.347	.182	-.063	.241	.422	.326	.300	.460	.385	3.49	.557
15. 가족친밀관계	.000	.084	.071	.097	.108	.067	.108	.092	.135	.103	.181	.174	.189	.556	1	.592	.288	.305	-.115	.222	.327	.276	.323	.380	.539	3.49	.567
16. 좋은 부모	.005	.017	.074	.095	.124	.066	.097	.048	.121	.081	.164	.134	.082	.583	.618	1	.268	.281	-.119	.204	.357	.261	.354	.420	.531	3.54	.578
성공목표																											
17. 성공인정	.023	.019	-.026	-.033	.011	.053	.044	.025	.111	.101	.111	.158	.155	.464	.395	.338	1	.295	.221	.216	.270	.333	.164	.279	.260	3.17	.664
18. 좋은 대학	.025	.029	.023	.006	.070	.077	.049	.014	.016	.073	.107	.078	.065	.248	.242	.281	.339	1	.163	.170	.172	.127	.178	.165	.229	3.10	.786
19. 부유소유	-.016	.044	-.043	-.051	-.004	.036	.018	-.024	-.024	-.004	-.009	.003	.024	.040	.066	.015	.187	.248	1	.050	.034	-.023	-.019	-.078	-.087	2.29	.797
자기성장목표																											
20. 창의성	.047	.073	.107	.085	.077	.100	.120	.193	.224	.175	.238	.189	.158	.310	.247	.280	.265	.146	.123	1	.334	.394	.343	.288	.259	3.08	.671
21. 자기만족	.035	.045	.083	.105	.120	.091	.120	.091	.161	.115	.180	.183	.105	.447	.334	.349	.283	.175	.110	.403	1	.249	.416	.272	.271	3.39	.579
22. 도전	.027	.061	.060	.013	.083	.066	.087	.145	.163	.155	.181	.177	.185	.441	.388	.384	.459	.188	.079	.376	.340	1	.324	.415	.333	3.08	.688
사회기여목표																											
23. 타인돕기	.055	.088	.087	.107	.082	.101	.127	.227	.207	.175	.230	.212	.232	.384	.309	.311	.297	.147	.075	.384	.423	.343	1	.486	.364	3.15	.603
24. 환경보호	.022	.070	.046	.101	.089	.043	.114	.136	.118	.200	.203	.188	.218	.567	.426	.444	.403	.215	.047	.310	.299	.493	.468	1	.430	3.20	.594
25. 정의실현	.023	.058	.108	.083	.070	.092	.078	.135	.169	.123	.165	.115	.159	.436	.517	.562	.366	.238	.076	.281	.314	.426	.366	.459	1	3.32	.606
M(남)	17.96	2.276	2.591	2.899	3.037	2.761	3.151	2.666	2.807	2.752	2.722	2.969	2.823	3.39	3.42	3.46	3.14	2.99	2.43	3.14	3.30	3.16	3.10	3.17	3.27		
SD(남)	19.60	1.769	.540	.573	.620	.7144	.6991	.645	.646	.596	.543	.439	.670	.629	.629	.645	.698	.883	.857	.694	.662	.660	.677	.661	.667		

* $p<.05$, ** $p<.01$, *** $p<.001$. 상관계수는 대각선을 기준으로 위가 여학생, 아래가 남학생 자료임

표 4

활동 참여율의 성차 (명수 및 참여비율)

	n (%)								
	건강/ 보건	과학/ 정보	교류 활동	모험/ 개척	문화/ 예술	봉사 활동	직업 체험	환경 보존	자기 계발
남	386(54.5)	200(57.1)	101(50.8)	407(50.5)	196(40.7)	630(46.6)	296(41.6)	130(51.6)	208(43.2)
여	322(45.5)	150(42.9)	98(49.2)	399(49.5)	285(59.3)	722(53.4)	415(58.4)	122(48.4)	273(56.8)
χ^2	6.592**	7.269**	.005	.001	23.651***	21.555***	33.323***	.125	13.108***

* $p<.05$, ** $p<.01$, *** $p<.001$.

3. 사회·정서 및 생애목표에서의 성차 (연구문제 2)

성별에 따른 각 변인의 평균 차이를 탐색하고자, 사회·정서, 생애목표에 대하여 각 변인의 하위구인을 종속변인으로,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Hotelling's T-Square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사회·정서에서의 성차

분석 결과, 정서안정에서 성차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공격성, 신체증상, 우울증상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체 의식의 하위구인인 봉사협동 및 다문화 수용에서는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에서는 학교규칙 준수와 긍정적 교우관계에 대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하위 변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5 참조).

2) 생애목표에서의 성차

각 생애목표별로 성차를 살펴보면, 가족목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반면, 사회기여 목표에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성공목표와 성장목표는 하위 문항별로 성차가 발견되어 성공목표 중 좋은 대학진학은 여학생이 높은 반면, 부유소유는 남학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6 참조). 성장목표 중 자기만족 목표는 여학생이, 창의성 및 도전 목표는 남학생이 높았다.

표 5

사회·정서에서의 성차

	<i>M(SD)</i>		<i>MS</i>	<i>F(df=3)</i>	η^2	ζ^2	비교
	남학생	여학생					
정서안정							
(비)주의산만	2,591(.540)	2,632(.516)	.898	3,218	.001	77.63***	n,s
(비)공격성	2,899(.573)	2,842(.567)	1,782	5,478*	.002		남 > 여
(비)신체증상	3,037(.620)	2,925(.632)	7,032	17,921***	.008		남 > 여
(비)사회위축	2,761(.714)	2,759(.698)	.004	.007	.000		n,s
(비)우울증	3,151(.609)	2,987(.612)	14,941	40,065***	.018		남 > 여
공동체 의식							
봉사협동	2,666(.645)	2,766(.540)	5,535	15,603***	.007	35.49***	남 < 여
다문화 수용	2,766(.540)	2,960(.587)	12,896	33,736***	.015		남 < 여
학교적응							
학습태도	2,722(.543)	2,741(.499)	.198	.726	.000	57.67***	n,s
학교규칙	2,752(.596)	2,834(.517)	3,684	11,789**	.005		남 < 여
교우관계	2,969(.439)	3,064(.380)	5,000	29,542***	.013		남 < 여
교사관계	2,823(.670)	2,779(.650)	1,098	2,516	.001		n,s

* $p<.05$, ** $p<.01$, *** $p<.001$.

표 6

생애목표에서의 성차

	<i>M(SD)</i>		<i>MS</i>	<i>F(df=3)</i>	η^2	ζ^2	비교
	남학생	여학생					
가족목표							
행복한 가정	3,39(.629)	3,49(.557)	5,216	14,752***	.007	15.56**	남 < 여
가족친밀감	3,42(.557)	3,49(.567)	3,101	8,643**	.004		남 < 여
좋은 부모되기	3,46(.596)	3,54(.578)	3,892	10,362**	.005		남 < 여
성공목표							
성공인정	3,14(.698)	3,17(.664)	.322	.694	.000	33.27***	n,s
좋은 대학진학	2,99(.883)	3,10(.786)	6,925	9,895***	.004		남 < 여
부유소유	2,43(.857)	2,29(.797)	10,882	15,887***	.007		남 > 여
성장목표							
창의성	3,14(.694)	3,08(.671)	1,986	4,265*	.002	35.49***	남 > 여
자기만족	3,30(.662)	3,39(.579)	5,278	6,827**	.006		남 < 여
도전	3,16(.660)	3,08(.658)	2,965	13,625***	.003		남 > 여
사회기여목표							
타인돕기	3,10(.677)	3,15(.603)	1,366	3,322	.001	4.44	n,s
환경보호	3,17(.661)	3,20(.594)	.340	.861	.000		n,s
정의실현	3,27(.667)	3,32(.606)	1,272	3,126	.001		n,s

* $p<.05$, ** $p<.01$, *** $p<.001$.

4. 창의적 체험활동 참여, 사회·정서, 생애목표 간의 관계 (연구문제 3)

1) 연구모형

앞에서 살펴 본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본 연구는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가정하였다. 즉, 체험활동 참여는 사회·정서(공동체 의식, 정서적 안정, 학교 적응)에 영향을 주고 또한 체험활동 참여와 사회·정서는 생애목표(가족, 성공, 성장, 사회기여)정립에 영향을 주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참조). 또한 이러한 구조적 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별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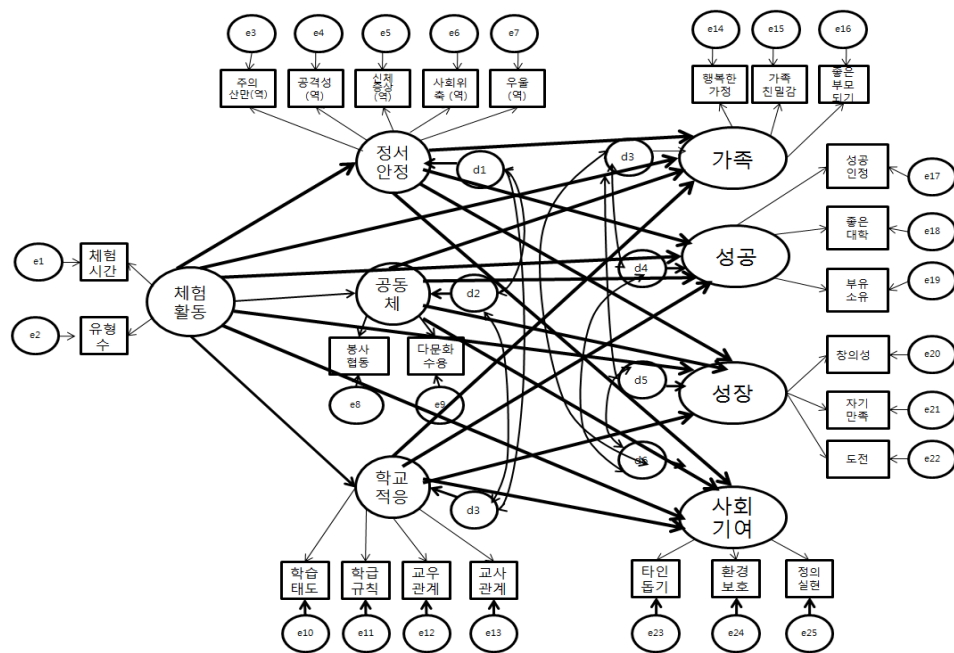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성차 검증

체험활동 참여, 사회정서, 생애목표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의 집단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각 집단에 연구모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의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집단의 동일성 검증은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 절편 동일성의 검증 순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형태동일성 검증을 위하여 성별 각 집단의 연구모형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chi^2(247)=1114.572$, $p<.001$, CFI=.900, TLI=.860, RMSEA=.056)과 여학생($\chi^2(247)=1396.059$ $p<.001$, CFI=.860, TLI=.837, RMSEA=.065) 두 집단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형태동일성 검증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hi^2(494)=2513.981$, $p<.001$, CFI=.880, RMSEA=.043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을 이루는 변인간의 관계 설정이 양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의 적합도는 일반적으로 CFI와 TLI가 .80이상이면 양호, .90이면 매우 적합으로 판단되며(Chau, 1996; Taylor & Todd, 1995) RMSEA는 .05 이하이면 매우 적합, .08이하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Browne & Cudeck, 1993; Hooper, Coughlan & Mullen, 2008).

다음으로 측정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형태동일성이 검증된 기저모형과 각 집단의 요인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모형1)을 비교한 결과 모형 적합도에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완전 측정 동일성이 성립되었다(표 7 참조). 따라서 집단 사이의 경로계수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구조동일성 검증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Byrne, Shavelson & Muthén, 1989; Steenkamp & Baumgartner, 1998). 또한, 이에 더 나아가 절편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변수의 절편에 대한 동일화 제약을 추가하자 χ^2 차이 검증의 결과나 TLI와 RMSEA 값의 변화는 유의하게 나빠져 성별 집단에 있어서 측정변수의 절편은 같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앞서 제시한 연구변인에 대한 성차 검증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절편동일성이 기각되었기에 형태동일성 검증에서 확인한 요인 구조의 동등성과 측정동일성 검증에서 확인한 요인계수의 동등성만을 가정한 모형1을 사용하여 변인 간의 관계모형에 대한 집단 간 차이 존재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최종 측정모형(모형1)과 모든 경로에 제약을 가한 모형(모형3)을 비교한 결과,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에 있어서 성차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집단의 동일성 제약 검증

모형	df	χ^2	Δdf	$\Delta \chi^2$	CFI	TLI	RMSEA
측정모형							
기저모형: 무제약모형	494	2510.634			.880	.855	.043
모형1: 기저모형에 모든 요인계수 동일화 제약	511	2536.779	17	26.135	.880	.859	.042
모형2: 모형1에 지표변수 동일화 제약	536	2807.408	25	270.629***	.865	.849	.044
구조모형							
기저모형: 최종 측정모형(모형1)	511	2536.779			.880	.859	.042
모형3: 모형1에 모든 경로 동일화 제약	530	2553.015	19	16.236	.880	.864	.043

* $p < .05$, ** $p < .01$, *** $p < .001$.

3) 변인 간 구조적 관계

따라서 모든 경로에 제약을 가한 모형(모형3)을 최종모형으로 설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사회정서, 생애목표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이는 남녀 학생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석된다. 각 경로의 모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8

변인 간 경로계수

경로(경로모형)	무제약모형		최종제약(모형3)	
	전체 B(β)		남학생 B(β)	여학생 B(β)
체험활동 → 정서안정	.001(.055)*		.002(.064)*	.002(.061)*
체험활동 → 공동체	.005(.159)***		.005(.144)***	.005(.163)***
체험활동 → 학교적응	.005(.171)***		.005(.161)***	.005(.172)***
체험활동 → 가족	.001(.027)		.001(.023)	.001(.024)
체험활동 → 성공	.001(.013)		.000(.011)	.000(.011)
체험활동 → 성장	.002(.050)		.002(.053)	.002(.055)
체험활동 → 사회기여	.002(.048)		.002(.046)	.002(.048)
정서안정 → 가족	.093(.062)*		.100(.064)*	.100(.072)*
정서안정 → 성공	-.106(-.061)		-.110(-.061)	-.110(-.068)
정서안정 → 성장	.100(.079)*		.078(.061)	.078(.066)
정서안정 → 사회기여	.104(.073)*		.095(.065)*	.095(.072)*
공동체 → 가족	.041(.034)		.033(.027)	.033(.026)
공동체 → 성공	-.102(-.074)		-.099(-.073)	-.099(-.068)
공동체 → 성장	.207(.207)***		.215(.219)***	.215(.202)***
공동체 → 사회기여	.231(.204)***		.230(.208)***	.230(.192)***

경로(경로모형)	무제약모형		최종제약(모형3)	
	전체 B(β)	남학생 B(β)	여학생 B(β)	
학교적응 → 가족	.274(.224)***	.266(.219)***	.266(.218)***	
학교적응 → 성공	.352(.251)***	.345(.245)***	.345(.243)***	
학교적응 → 성장	.193(.189)***	.193(.192)***	.193(.187)***	
학교적응 → 사회기여	.225(.195)***	.222(.195)***	.222(.190)***	
d1 ↔ d2	.012(.104)***	.010(.086)***	.017(.161)***	
d1 ↔ d3	.043(.390)***	.038(.320)***	.052(.489)***	
d2 ↔ d3	.087(.639)***	.095(.624)***	.076(.659)***	
d4 ↔ d5	.132(.590)***	.158(.643)***	.104(.521)***	
d4 ↔ d6	.105(.696)***	.166(.889)***	.127(.828)***	
d4 ↔ d7	.147(.860)***	.124(.752)***	.088(.650)***	
d5 ↔ d6	.122(.688)***	.151(.687)***	.104(.647)***	
d5 ↔ d7	.121(.602)***	.141(.728)***	.090(.491)***	
d6 ↔ d7	.118(.867)***	.131(.889)***	.105(.848)***	
체험활동 → 참여시간	1.000(.628)***	1.000(.635)***	1.000(.611)***	
체험활동 → 참여유형 수	.127(.881)***	.129(.908)***	.364(.860)***	
정서안정 → 주의산만(역)	1.000(.569)***	1.000(.560)***	1.00(.605)***	
정서안정 → 공격성(역)	1.337(.705)***	1.313(.698)***	1.31(.717)***	
정서안정 → 신체증상(역)	1.630(.780)***	1.583(.793)***	1.583(.760)***	
정서안정 → 사회위축(역)	1.316(.560)***	1.295(.569)***	1.295(.558)***	
정서안정 → 우울(역)	1.517(.741)***	1.470(.727)***	1.470(.752)***	
학교적응 → 학습태도	1.000(.682)***	1.000(.713)***	1.000(.704)***	
학교적응 → 학교규칙	1.063(.704)***	1.021(.673)***	1.021(.683)***	
학교적응 → 교우관계	.688(.599)***	.676(.600)***	.676(.621)***	
학교적응 → 교사관계	1.144(.654)***	1.137(.658)***	1.137(.614)	
공동체 의식 → 다문화수용	1.000(.607)***	1.000(.617)***	1.000(.580)***	
공동체 의식 → 봉사,협동	1.237(.783)***	1.254(.780)***	1.254(.787)***	
가족 → 행복한 가정	1.000(.763)***	1.000(.767)***	1.000(.757)***	
가족 → 가족친밀감	.983(.746)***	.982(.745)***	.982(.739)***	
가족 → 좋은부모되기	1.057(.783)***	1.061(.776)***	1.061(.790)***	
성공 → 성공인정	1.000(.766)***	1.000(.790)***	1.000(.745)***	
성공 → 좋은대학진학	.722(.449)***	.711(.443)***	.711(.447)***	
성공 → 부유소유	.360(.226)***	.364(.234)***	.364(.227)***	
성장 → 창의성	1.000(.554)***	1.000(.564)***	1.000(.541)***	
성장 → 자기만족	.924(.560)***	.915(.550)***	0.915(.563)***	
성장 → 도전	1.124(.644)***	1.133(.682)***	1.133(.615)***	
사회기여 → 정의실현	1.000(.671)***	1.000(.671)***	1.000(.666)***	
사회기여 → 환경보호	1.019(.694)***	1.023(.696)***	1.023(.693)***	
사회기여 → 타인돕기	.900(.600)***	.904(.592)***	.904(.612)***	

* $p<.05$, ** $p<.01$, *** $p<.001$.

(1) 체험활동 참여가 사회·정서에 미치는 영향

중학교 1학년 때의 체험활동 참여가 중학교 2학년 때의 사회·정서, 즉, 정서적 안정, 공동체 의식, 학교적응에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험활동이 사회·정서의 각 세부 구인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비교하였을 때, 체험활동의 정서적 안정에 대한 영향(체험활동→정서적 안정)보다 체험활동의 공동체 의식(체험활동→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t=3.913$, $p<.001$)과 체험활동의 학교적응(체험활동→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t=2.902$, $p<.01$)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험활동의 공동체 의식(체험활동→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체험활동의 학교적응(체험활동→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t=.439$, $p>.10$).

(2) 사회·정서가 생애목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정서(정서적 안정, 공동체 의식, 학교적응)가 생애목표(가족, 성공, 자기성장, 사회기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정서적 안정은 가족과 사회기여목표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공동체 의식은 가족과 성공목표를 제외한 자기성장과 사회기여목표에 정적 영향을 나타낸 반면, 학교적응은 모든 생애목표 유형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각 생애목표에 대한 사회·정서의 영향 크기를 비교하면, 가족목표에는 정서안정과 학교적응만이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 크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806$, $p>.05$). 성공목표에는 학교적응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기성장목표에 대해서 사회·정서 중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으며, 공동체 의식의 영향과 학교적응의 영향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212$, $p>.05$). 마지막으로, 사회기여목표에 대해서는 사회·정서의 모든 구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공동체 의식의 영향이 정서안정의 영향보다 컸고($t=2.327$, $p<.05$), 공동체 의식의 영향과 학교적응의 영향 간($t=-.078$, $p>.05$), 정서안정과 학교적응의 영향 간($t=1.383$, $p>.05$)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체험활동 참여가 생애목표에 미치는 작·간접영향

체험활동 참여가 생애목표에 미치는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 분석과 검증을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다(표 9 참조). 원 자료(N =2,220)에서 무선 표집으로 생성된 1,000개의 자료 표본이 모수 추정에 사용되었으며, 신뢰구간은 95% 이었다. 또한, 성공목표를 제외한 가족, 자기성장, 사회기여 목표에 대한 체험활동 참여의 총 효과는 유의하였다. 총 효과를 상세분석한 결과, 체험활동 참여가 네 개 유형의 생애목표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나 정서안정, 공동체 의식, 학교적응의 사회·정서 변인을 매개로 한 총 간접효과는 모두 유의하였다. 또한 Sobel 검정을 통해 각 정서안정, 공동체 의식, 학교적응을 각기 매개로 한 상세 간접 경로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체험활동이 학교적응을 매개로 하여 네 개 유형의 생애 목표에 미치는 모든 매개효과는 유의하였고,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하여 자기성장과 사회기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각 경로의 총 효과 분석

경로	효과분석	전체			남학생			여학생			간접효과 상세분석	
		B(β)	SE	B(β)	SE	B(β)	SE	B(β)	SE	B(β)	상세경로	z
체험활동→가족목표	총효과	.003(.074)**	.001(.027)	.003(.066)*	.001(.026)	.003(.070)*	.001(.028)	.001(.028)	.001(.028)	.001(.028)	체험활동→정서안정→가족목표	.221
	직접효과	.001(.027)	.001(.027)	.001(.023)	.001(.027)	.001(.024)	.001(.027)	.001(.029)	.001(.029)	.001(.029)	체험활동→공동체의식→가족목표	.575
	간접효과	.002(.047)***	.000(.009)	.002(.043)**	.000(.009)	.002(.046)**	.000(.009)	.000(.010)	.000(.010)	.000(.010)	체험활동→학교적응→가족목표	3.186**
체험활동→성공목표	총효과	.002(.040)	.001(.030)	.002(.036)	.001(.029)	.002(.038)	.001(.031)	.001(.031)	.001(.031)	.001(.031)	체험활동→정서안정→성공목표	-1.135
	직접효과	.001(.013)	.001(.031)	.000(.011)	.001(.029)	.000(.011)	.001(.032)	.001(.032)	.001(.032)	.001(.032)	체험활동→공동체의식→성공목표	-1.293
	간접효과	.001(.028)***	.000(.008)	.001(.025)**	.000(.008)	.001(.026)**	.000(.008)	.000(.009)	.000(.009)	.000(.009)	체험활동→학교적응→성공목표	3.266**
체험활동→자기성장	총효과	.004(.119)***	.001(.030)	.004(.119)**	.001(.03)	.004(.125)**	.001(.032)	.001(.032)	.001(.032)	.001(.032)	체험활동→정서안정→자기성장	1.344
	직접효과	.002(.050)	.001(.030)	.002(.053)	.001(.030)	.002(.055)	.001(.030)	.001(.031)	.001(.031)	.001(.031)	체험활동→공동체의식→자기성장	3.080**
	간접효과	.002(.070)***	.000(.012)	.002(.066)**	.000(.012)	.002(.069)**	.000(.012)	.000(.013)	.000(.013)	.000(.013)	체험활동→학교적응→자기성장	2.770**
체험활동→사회기여	총효과	.004(.118)***	.001(.028)	.004(.112)**	.001(.028)	.004(.117)**	.001(.029)	.001(.029)	.001(.029)	.001(.029)	체험활동→정서안정→사회기여	1.452
	직접효과	.002(.048)	.001(.028)	.002(.046)	.001(.027)	.002(.048)	.001(.027)	.001(.028)	.001(.028)	.001(.028)	체험활동→공동체의식→사회기여	3.140**
	간접효과	.002(.070)***	.000(.012)	.002(.065)**	.000(.012)	.002(.069)**	.000(.012)	.000(.013)	.000(.013)	.000(.013)	체험활동→학교적응→사회기여	2.942**

* $p<.05$, ** $p<.01$, *** $p<.001$. (양측 검정)

IV. 결론 및 논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초기 청소년기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1년 동안 10명 중 9명의 비율로 한 개 이상의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 평균 2-3개의 활동에 참여하며 평균 약 20시간정도 체험활동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이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의 학생들(약 61%)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약 1/3의 학생들은 모험/개척활동, 직업체험활동 및 건강/보건활동에 참여한다고 답하였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봉사활동과 함께 다양한 비교과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참여 시간은 약 2-3주에 1시간 비율로 나타나, 양적으로 볼 때 많은 시간을 집중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차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참여유형이 다양하고 참여 시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건강/보건, 과학/정보 활동에, 여학생은 문화/예술, 봉사, 직업체험, 자기계발에 참여한 비율이 높았다. 남학생이 수·과학 관련 활동에서 더 높은 흥미와 수행을 보이고, 관계지향적인 활동에 여학생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많은 선행연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였다. 정서안정에서도 성차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공격성, 신체증상, 우울증상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학생은 내재화문제, 충동성문제증후군,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공격성 척도 등에서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이현지 외(2005)의 연구와 남학생이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김소영(2013)의 연구와 매우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공동체 의식의 하위구인인 봉사협동 및 다문화 수용과 학교적응 변인 중 학교규칙 준수와 긍정적 교우관계에서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생애목표 중 가족목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긍정적 또래관계 인식 수준이 높고 관계지향적 특성으로 인하여 교우 및 가족관계에 대한 보다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타인을 돕는 봉사활동 참여율이 높다는 선행연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도종수, 성준모, 2013; 이현주 외, 2013; Pancer & Pratt, 1999; Wright, 1971). 그리고 성공 목표 중 좋은 대학진학은 여학생이, 부유소유는 남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성장 목표 중에서는 자기만족 목표는 여학생이, 창의성 및 도전 목표는 남학생이 높게 나타나,

남학생의 경우 명예에 대한 목표 중요성을 높이 인식한다는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김양분 외, 2010). 이와 같이 본 연구결과에서 생애목표의 다양한 세부 목표 인식 수준에서 성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성공과 자기성장에 대한 의미를 남학생과 여학생이 다르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연구변인간의 인과관계에서는 성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남녀 모두 동일하게 중학교 1학년 때의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가 중학교 2학년 때의 사회·정서(정서적 안정, 공동체 의식, 학교적응)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다수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강가영, 장유미, 2013; 박재숙, 2010; 고관우, 남진열, 2011). 구체적으로 체험활동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체험활동의 정서적 안정에 대한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높은 사회 현실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학생들이 본인의 흥미에 맞고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을 구성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학교 안의 집단따돌림 문제를 완화시키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부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정서가 생애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을 때, 정서적 안정은 성공목표를 제외한 모든 생애 목표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공동체의식은 자기성장과 사회기여 목표에, 학교적응은 모든 생애 목표 유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험활동 참여가 생애목표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체험활동 참여가 네 개의 생애목표(가족, 성공, 자기성장, 사회기여)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으나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활동의 생애목표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은 체험활동의 참여 정도(중학교 1학년)와 생애목표 인식(중학교 3학년)의 측정간격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체험활동의 참여정도를 종단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체험활동은 성공목표를 제외한 가족, 자기성장, 사회기여 목표에 대한 총 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발견으로서,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는 사회·정서뿐 아니라 장기적인 생애목표를 수립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바를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론 및 청소년 교육현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체험활동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체험

활동의 절대적 시간과 학생 성장이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체험활동의 창의·인성 개발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보고하는 많은 연구들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선호하는 활동과 요구를 조사·분석 하고 반영하여 체험활동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동기와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청소년의 적응과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를 감안할 때 더욱 요구된다(진은설, 2013). 구체적으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실태를 알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주로 언제, 얼마나 집중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활동에 참여하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고하여 이에 대한 참여를 제고해야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체험활동참여에서 성차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남녀 학생들이 기존의 성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더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을 선택하는데 있어 교사의 적극적인 도전과 도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기존의 여성편향적, 남성편향적인 활동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존의 여학생이 선호하지 않는 내용들을 여학생이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반대로 남학생이 성고정관념 상 쉽게 접하지 않는 내용을 남학생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접할 수 있도록 활동내용과 방법론적인 면을 수정하기 위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연구변인간의 인과관계에서는 성차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회정서 및 생애목표 수준에 있어서 성차가 존재할지라도,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체험활동 참여가 동일하게 학생들의 사회정서 발달에, 사회·정서는 다시 삶의 목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한다. 즉, 체험 활동들로 인해 행복한 가정생활, 가족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삶의 목표를 세우며, 자신을 즐기며 창조적인 생활과 행동을 하고 도전과 모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나아가 본인이 속한 사회에 능력 및 재능을 기부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게 될 것이다. 또한, 체험활동 참여 정도뿐 아니라 각 구체적인 유형이 사회정서 및 생애목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성차들을 파악하여 보다 청소년의 개별적인 교육적 요구에 따라 효과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청소년 체험활동의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이미 수집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의 1~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체험활동의 참여 유형수 및 시간만을 분석함으로 각 체험활동의 유형 및 특징에 따른 청소년의 만족도, 그리고 이와 같은 활동이 생애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자세히 분

석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 체험활동의 각 영역 및 활동의 내용, 방식 등이 생애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균형 잡힌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제안할 수 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비교적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일부 척도(예: 성공목표)가 발견되었으나 종단연구 특성상 문항수의 제한과 대규모 연구의 타당화된 척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명시된 문항자료를 수정 없이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연령의 코호트를 사용하여 연구척도의 신뢰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가영, 장유미 (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1), 97-123.
- 고관우, 남진열 (2011). 초기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에 따른 공동체의식과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31-250.
- 구미향 (2005). 정서·행동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한 주관적 인식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6(2), 67-92.
- 권혜원 (2004). **중학생의 민주 시민 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 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김선희, 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소영 (2013). 고등학생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정서조절,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 다집단 분석을 통한 성별 차이 탐색. **청소년 문화포럼**, 35, 92-113.
- 김순규, 최혜정, 박신애 (2012).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개인, 가족, 학교측면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4(4), 189-207.
- 김양분, 임현정, 신혜숙, 남궁지영, 신종호, 홍세희 (2010). **한국교육종단연구2005(VI)** (연구보고 RR 2010-2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원태 (2001). 고등학교에서의 사회참여 체험교육과 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3(1), 49-88.
- 김위정 (2012). 가정환경과 학교경험이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1), 201-222.
- 김윤나, 박옥식 (2009). 청소년활동의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자아존중감, 직업성숙도, 학업성취, 생활만족도, 스트레스, 비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1), 79-99.
- 김윤현 (2010). **청소년 수련활동의 만족도와 성과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주환, 김은주, 홍세희 (2006). 한국 남녀 중학생 집단에서 자기결정성이 학업성취도에 주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0(1), 243-264.

- 도종수, 성준모 (2013). 청소년활동 경험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2), 145-173.
- 문성호, 문호영 (2010). 청소년활동의 참여실태, 만족도 및 영역별 효과성. **청소년복지연구**, 12(2), 95-122.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가나 (2009). 청소년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6(10), 273-306.
- 박성혜, 윤종희 (2013). 초중등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24(3), 147-169.
- 박재숙 (2010). 학교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4), 157-182.
- 신종호, 서은진, 이유경 (2011). 생애목표검사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5(2), 255-276.
- 신종호, 진성조 (2013). 생애목표유형이 학업적 자기개념, 학업노력,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성취수준에 따른 차이 검증. **교육심리연구**, 27(1), 161-180.
- 양계민, 정진경 (2008).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1). **2011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이종원, 장근영, 김호순 (2007). **2007년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연구보고 07-R4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종원, 황진구, 서정아, 한영근, 허효주, 이영화 외 (201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V 사업보고서**(연구보고 13-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현주, 권희경, 신태섭 (2013). 또래관계와 자아개념 변화, 미래목표인식, 진로성숙의 수준 및 구조적 관계에서 성차. **교육심리연구**, 27(1), 99-123.
- 이현주, 김용남 (2011). 내재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의 종단적 변화 분석: 중·고등학교급 차이 및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제5회 한국교육 종단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415-435.
- 이현지, 하은혜, 오경자 (2005). 청소년기 정서 및 행동문제의 성차.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16(1), 117-123.

- 임지현, 류지현 (2007). 초등학생의 학년과 성별에 따른 자기결정성 수준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교육방법연구**, 19(2), 163-181.
- 장덕희, 이명옥, 양점도 (2011). 청소년의 자원봉사 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포항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9), 121-146.
- 전성희, 신미, 유미숙 (2011). 청소년의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청소년학연구**, 18(1), 275-296.
- 조봉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조아미, 신태수 (2012).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청소년활동 참여 수준의 유형과 특성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3(2), 161-184.
- 진은설 (2013).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 활동만족도, 적응유연성 및 행복감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4(1), 185-217.
- 최형임, 이재성, 문영경 (2012).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9(1), 23-45.
- 한상철, 이수연 (2003). 가출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행동에 대한 상담학적 개입전략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1), 152-165.
- 허철수, 강옥련 (2010). 동아리활동 참여 청소년과 미참여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12(3), 25-46.
- 황진구, 허효주, 안현미 (2013).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dler, R. B., Rosenfeld, L. B., & Towne, N. (2004). *Interplay the process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9th ed.).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yrne, B. M., Shavelson, R. J., & Muthén, B. (1989). Testing for the equivalence of factor covariance and mean structures: The issue of partial measurement invariance. *Psychological Bulletin*, 105(3), 456-466.
- Chau, P. Y. K. (1996). An empirical investigation on factors affecting the acceptance of CASE by systems developers. *Information & Management*, 30(6), 269-280.

- Eggen, P., & Kauchak, D. (2011). **교육심리학: 교육 실재를 보는 창** (신중호, 김동민, 김정섭, 김종백, 도승이, 김지현 외 역. 8판). 서울: 피에슨에듀케이션코리아. (원저 2009 출판).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Stonton, New York: Norton & Co.
- Hooper, D., Coughlan, J., & Mullen, M. R. (2008).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Guidelines for determining model Fit. *The Electronic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Methods*, 6(1), 53-60.
- Janna, S., & Michael, F. S. (1995). There's a first time for everything: Understanding adolescence. *Adolescence*, 30, 217-221.
- Kurtz-Costes, B., Rowley, S. J., Harris-Britt, A., & Woods, T. A. (2008). Math/science gender stereotypes and students' perceptions of ability: Are girls resilient?. *Merrill Palmer Quarterly*, 54, 386-409.
- Lopez, F. G., Campbell, V. L., & Watkins, C. E. (1986). Depression,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ollege adjustment: An investigation for sex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1), 52-56.
- Mailandt, W. (1998). Adolescent perception of workload and stress. *Guidance and Counseling*, 14(1), 19-22.
- Midgley, C., Kaplan, A., & Middleton, M. J. (2001). Performance-approach goals: Good for what, for whom, under what circumstances, and at what cos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3, 77-86.
- Pancer, S. M., & Pratt, M. W. (1999). Social and family determinants of community service involvement in Canadian youth. In M. Yates, & J. Youniss (Eds.), *Roots of civic identity: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ommunity service and activism in youth* (pp.32-55).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unk, D. H., & Pajares, F. (2002). The developmen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A. Wigfield, & J. Eccles (Eds.), *Development of achievement motivation* (pp.15-32). San Diego: Academic Press.
- Steenkamp, J.-B. E. M., & Baumgartner, H. (1998). Assessing measurement invariance in cross-national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 Research*, 25(1), 78-107.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5), 185-190.
- Taylor, S., & Todd, P. A. (1995). Understanding information technology usage: A test of competing models. *Information System Research*, 6(2), 144-176.
- Thompson, B. (2004).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Understanding concepts and application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Ussher, M. H., Owen, C. G., Cook, D. G., & Whincup, P. H.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ctivity, sedentary behaviou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adolescent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2, 851-856.
- U.S. Department of Education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2). *Nationa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Eighth grade questionnaire*. Chicago: A Social Science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Chicago.
- Wright, D. (1971). *The psychology for moral behavior*. Middlesex, England: Penguin Books.

ABSTRACT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nd gender differences in youth activity involvement, social-emotional aspects, and life goals

Lee, Hyunjoo* · Chae, Yoo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experience of youth activities, social-emotional aspects (emotional stability, a sense of community, school adaptation) and life goals (family, success, self-growth, social contribu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data from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s longitudinal study were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revealed that 90% of youth participated in 2-3 youth activities, spending about 20 hours a year on such activities. The most common type of activities which students participated in were voluntary service. Second, gender differences existed in the participation proportion by type of activities and the mean levels of social-emotional characteristics relationship. There was higher participation by girls in culture/arts-related programs and voluntary services whereas there was higher participation by boys in health-related and science/IT programs. Furthermore, girls recorded lower scores on emotional stability and higher scores on a sense of community and school adaptation factors; and girls' also recorded higher scores on the family goal. Third, the experience of youth activities positively effected the social/emotional aspects. Fourth, the emotional stability factor affected life goals,

* Associate Professor, Myongji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 Senior Researcher, KAIST Global Institutes For Talented Education(GIFTED)

with the exception of the success goal; a sense of community affected the self-growth and social contribution goal; and the school adaptation factor positively affected all of the life goals. Lastly, the total effects of the experience of youth activities on the four life goal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cluding the effects on self-growth.

Key Words : youth activity, a sense of community, school adaptation, life goal

투고일 : 2014. 3. 9, 심사일 : 2014. 5. 9, 심사완료일 : 2014. 5. 15